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1호 【루계 제23153호】 주체99(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백전백승의 선군령도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내세워주시고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대장인 우동측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해당 공장의 책임일군들, 인민군군인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대화시 《백두산3대장군 그 사랑 노래합니다》, 녀성중창과 방창 《고향집추억》, 녀성중창 《우리 공장구내에서 꾀꼴새 노래하네》, 재담 《쏟아진다》, 《경쟁열풍》, 막간극 《고치한줌》, 선동이야기 《우리 공장정문앞에 〈푸에블로〉호가 있다》, 북제창 《변이 나는 내 나라》, 제창이야기 《사랑하는 나의 일터》, 남성5중창과 합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시와 합창 《축복의 노래》,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혁명의 선봉부대로 억세게 자라나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자기들의 행복과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혁명적열정과 전투적인 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태여난 로동계급의 새 문화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비약과 혁신의 폭풍속에 노도쳐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른 모든 종목들에는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끄떡없이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앞장에서 떠밀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불변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속에서 활짝 꽃펴난 군중예술이야말로 혁명적군인문화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고상한 새 문화의 본보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행로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반제자주적립장이 투철하고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 로동계급이 부강조국건설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강성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피흘려 싸운것도 우리 로동계급이였고 새 사회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것도 우리의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새 문화창조에서도 마땅히 로동계급이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앞장서 받들어나가는 결사관철의 선봉부대인 우리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의 창조자들답게 앞으로도 대고조의 진군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돌격 앞으로

과학, 교육, 보건, 상업부문에서 궐기모임 진행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과학, 교육, 보건, 상업부문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다.

국가과학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격정속에 받아안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이며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닌 임무는 매우 무겁다고 하면서 과학기술발전전략을 바로 세우고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기술공학, 기초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경공업과학분원, 철도과학분원, 조종기계연구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과학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대고조시대 지식인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알곡증산과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에 기여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협동벌들에서 과학농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 토양학연구소, 축산학연구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다수확품종의 육종과 재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개발, 축산, 과수부문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학과학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받들고 선진적인 진단치료방법을 연구도입하고 효능높은 의약품들과 질좋은 의료기구들을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의학과학기술과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약학연구소 종업원들도 궐기모임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새로운 약품들의 개발과 도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의약품생산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장구한 기간 성스러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조직령도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원리교육,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이 피타는 노력과 탐구로 자질과 실력을 높여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특출한 성과들을 내놓으며 모든 학생들이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정복하고 민족의 존엄을 떨치겠다는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준비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이 위대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고 김일성민족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하다고 하면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교육의 내용과 질을 혁신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대학이 과학기술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진광산금속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에서 진행된 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쓸모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만유병원, 평양안과병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치료예방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근로자들속에서 당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감이 더욱 세차게 분출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여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움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시제1인민병원, 평안북도, 자강도인민병원, 함흥시, 개성시인민병원 종업원들도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가 력사적으로 실시하여온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 열의를 안고 궐기모임을 가지였다.

토론자들은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의료봉사활동을 벌려나가며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예방약공장, 개성영예군인고려약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제1백화점, 서평양백화점, 사리원백화점, 강계시사회급양관리소 종업원들은 궐기모임에서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봉사시설들을 현대화하고 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덕이 더 빨리, 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서 선군시대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위력한 경제선동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현장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강력한 경제선동대들을 틀이밀어 온 공장이 부글부글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도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상반년기간 석탄,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데 이어 7월에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전력생산자들은 높이 세운 전력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순천, 덕천, 북창, 안주, 득장, 개천지구의 탄전들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총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정신에 맞게 해당 부서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위대성교양자료들을 비롯한 도서들을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여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위대성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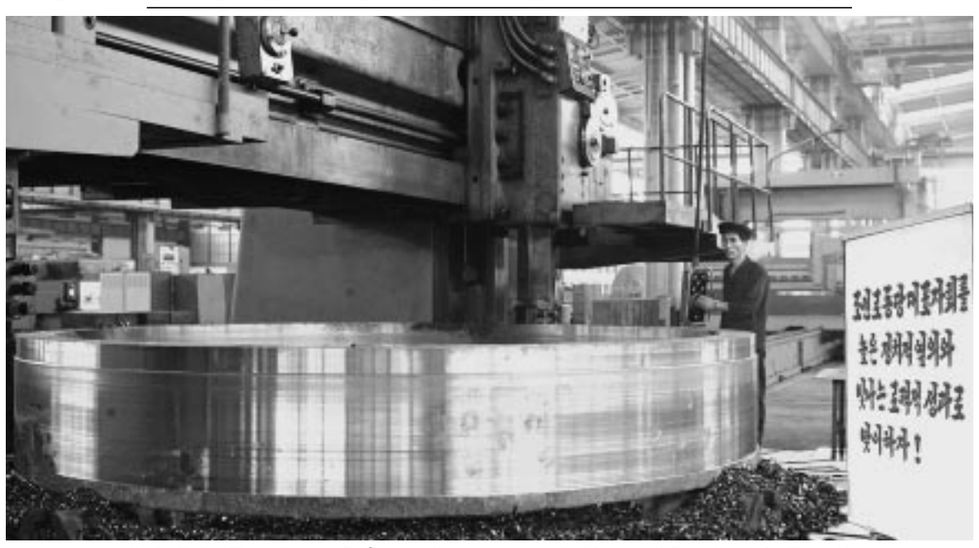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남일보사, 도방송위원회에서는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고있다.

평남일보사에서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등 도안의 중요단위들에 나가 집중편집을 기동성있게 보장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방송위원회에서는 들끓는 협동벌들에 달려나가 축하방송모임과 포전방송을 드세차게 들이댐으로써 농업근로자들모두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이 중요단위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들에 내려간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모아 실효성있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여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출판물관리국과 도영화보급관리처의 일군들도 인민경제 선행부문들과 협동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민족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과 국제비서, 스리랑카인민해방전선 지도자, 세네갈민주당 전국상임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푼씬뻬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과 제1비서, 단마르크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부 위원장,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기네통일진보당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대리, 모리따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민주꽁고 진정한 루뭄바주의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에짚트나쎄르아랍민주당 총비서,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스웨리예공산당 국제부,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로씨야 엔. 에쓰. 나제쥬시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무용단 단장과 지배인,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단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 위원회 서기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지 및 련대성 동유럽쎈터 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꾸바, 네팔,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수리아, 타이, 파키스탄, 끼르기즈스딴, 우즈베끼스딴, 인도네시아, 인디아, 예멘, 노르웨이, 단마르크, 로므니아, 룩셈부르그,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나이제리아, 민주꽁고, 뮤니지, 우간다, 에짚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꼴롬비아, 뻬루,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열렬한 축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것이며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정주시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불멸의 전승업적을 통하여

덕성과수농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학습강사들과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강연과 해설모임 등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심어주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이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성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처럼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면서도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그 어떤 역경에도 끄떡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걸어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여기시며 모든것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철저히 복종되도록 당사업과 당활동전반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

그이는 정녕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생각할 때면 《고난의 행군》시기 일군들에게 하신 그이의 말씀이 다시금 되새겨진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그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에게 있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것이 기본입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것은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됩니다. …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이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모두가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으로, 심부름군으로 한생을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뜨겁게 담겨져 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1월에도 인민에 대한 일군들의 복무관점문제를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인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혁명이 전진하고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인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문제를 중시하시였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단위 책임일군을 우리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렇게 불리우는 일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하는 혁명전우이며 진짜동지라고.

이렇듯 우리 장군님의 혁명전우, 진짜동지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에 의하여 규정되고있으니 그이의 인민관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위대한 어머니당의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조선로동당의 의지를 엄숙히 선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언제인가 당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면 무슨 일이나 다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떡도 치고 필요하다면 방아도 찧고 망질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의 충복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모든 활동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불패의것으로 다져지던 나날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당일군들의 사업보고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일이며 한 당일군이 정광생산만 중시하면서 로동자들의 살림집건설을 뒤로 미룬 사실을 놓고 정광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광부들부터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이야기, 북방의 어느 한 광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작업장문제를 놓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 이야기…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진정한 대표자, 철저한 옹호자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어이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나의 마음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들이 있다고 하시며 무슨 일에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라!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이것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이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분,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우리모두의 생활을 속속들이 잘 알고계시는분, 귀속말로 속삭이는 로동자의 소박한 감사의 말도 귀중히 들어주시고 아기이름을 지어달라는 평범한 녀성의 부탁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분, 바다바람에 녀병사들의 살결이 거칠어질세라 깊이 마음쓰시는분…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와 가장 아름다운 찬가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태여난 수천만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오늘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들의 기쁨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인민들의 행복속에 나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 일군들은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인민을 위하여 애써 일하여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며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 그이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의 리상은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간직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이다.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는 한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며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황명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나날에

초막에서 맞으신 새날

주체39(1950)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이미 예견되여있던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그런데 도중에 련이어 제기되는 급한 문제들을 처리하시다보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시였다.

한 일군이 차에서 급히 내려 집주인을 찾으려고 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시며 밤중에 소란스럽게 들어서면 집주인이 놀랄수 있으니 오늘밤은 밖에서 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밭에 낟알짚이 있으니 그것으로 초막을 치고 자면 구수한 냄새와 함께 온기가 돌것이라고, 항일빨찌산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니 참 좋았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농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초막이 서고 우등불이 피여오르기 시작하였다.

바람부는 길가에서

주체40(1951)년 3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밤늦도록 집무를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휴식하시게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일군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이날밤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예견되여있지 않던 서해지구의 어느 한인민군부대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차는 가없이 펼쳐진 들판길을 누비며 전속으로 달리였다.

그런데 차가 어느 나지막한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였다.

그리하여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서리내리는 밭머리초막에서 우등불을 마주하시고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새날을 맞으시였다.

원화리의 새벽

주체41(1952)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봄씨뿌리기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원화리를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새벽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집주인을 깨우지 말라고,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곤해하겠는가고, 이제 얼마후이면 날이 밝겠으니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마당에 앉아 쉬자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를 세우게 하시고 시계를 들여다보시며 아직 시간이 멀었다고, 이제 들어가면 병사들의 잠을 깨울수 있으니 좀 기다렸다 가자고 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고개길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잠자는 병사들을 위해 찬바람부는 길가에서 새날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러시고는 어서 짚단이나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허물없이 짚단우에 앉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서 모두들 여기와 앉으라고, 이렇게 마당에 앉아 아침공기를 마시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싸늘한 새벽바람이 키낮은 울바자를 넘어 마당으로 불어왔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나날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전선길의 하루는 이날도 이렇게 시작되였다.

본사기자 김용진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대고조이다

조선혁명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혁명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대고조이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이며 오늘의 대고조는 자력갱생의 대고조입니다.》

자력갱생은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간의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혁명의 길에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이 수없이 제기되게 된다.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치렬한 반제계급투쟁도 있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인미답의 길도 있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힘겨운 투쟁도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대고조의 불길을 일으켜나가는 시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의 힘을 바라거나 남의 도움을 바란다면 제힘으로 할수 있는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시련과 난관앞에서 주저앉게 된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을 동원하여야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으며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제낄수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의 전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빛내여온 영웅적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엄혹한 조건에서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연길폭탄》을 만들면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은것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이 서산락일의 내리막길을 걷게 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은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공장과 도시와 마을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온 나라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승발전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1990년대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을수 있은것도,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두차례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조국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은것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온데 있다.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모든 승리와 귀중한 전취물들에 진하게 슴배여있는 고귀한 투쟁정신이며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나갈 때 백전백승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 새겨져있는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활화산처럼 분출하고있다.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기에 우리는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낄것이다.

우리의 대고조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총진군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대고조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이다. 대고조를 일으켜나가는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을수도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불리한 조건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야 대고조의 불길이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불타는 각오,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겠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약동하던 간고분투의 정신이 오늘의 대고조진군길에서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난관을 불사르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것은 우리의 더없는 자랑이다.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한다는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대과수종합농장을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의 투쟁과 서해의 날바다와 싸우면서 간석지개간력사상 제일 큰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완공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에 원천을 두고있는 우리 시대의 영웅서사시이다.

우리 인민이 대고조진군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이라도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는 불굴의 정신력을 지닐 때 무에서 유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때 뜻깊은 올해에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대고조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일으켜나가는 대진군이다.

자력갱생은 자기의것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발현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으로 되고있다. 자체의 공업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동력문제를 풀고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는 자강도인민들,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국내원료에 의한 수백가지의 각종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삼일포특산물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지닌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대담하게 만들어내면서 자체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오늘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있으며 선군의 길에서 천백배로 다져온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리상을 반드시 실현해나갈것이다.

우리의 대고조는 현대적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총공세이다.

자력갱생은 현대과학기술과 결부될 때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로력과 자금,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력에 현대과학기술을 결합하는 여기에 비약과 혁신의 열쇠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생활대고조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최첨단돌파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에 오르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식의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돌파하고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야금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켰으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일떠세운것은 과학기술강국,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는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협동농장들의 혁신적성과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갈때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 일군들과 기술자들, 생산자들이 합심하여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기에 우리의 인민생활대고조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력갱생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미래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며 자체의 힘으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여기에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정선철

총공격전의 불길높이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로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여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남흥땅에서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세상에 소리치며 잘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과 락관을 더해주며 쨍쨍 쏟아져나오는 주체비료를 바라볼수록 온 나라의 대경사를 또다시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찌기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비료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와 나라의 비료공업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을 하루빨리 실현할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기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종합적인 대화학기지로 전변되여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운 가스화대상을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과 수송문제 등 남흥가스화대상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남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련관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를 창조할 기세로 공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에 넘쳐 건설전투를 드세차게 밀고나갔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에 자력갱생을 잘하는 기업소로 자랑떨쳐온 남흥의 로동계급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진격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건설전투의 나날 가스화공사장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 때마다 필승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감격도 새로운 2009년 5월, 온 남흥땅이 끝없는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전설적인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흥의 로동계급을 친히 찾아주신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스화공사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과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공사과제를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가스화공사에서 걸린 문제를 몸소 해결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남흥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공사를 앞당겨 끝낼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남흥땅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흥의 로동계급을 지켜보시며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과 배짱이 모두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자리잡았다.

이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가스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듯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남흥땅에 우리의 무진장한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비료생산기지가 소리치며 일떠서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추동하고 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력사적인 걸음을 또다시 크게 내짚음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고 인민의 세기적리상을 꽃피우는데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얼마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드넓은 남흥벌에 거창하게 일떠선 가스화공정을 돌아보시고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질 또 하나의 만년재부가 마련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하직장의 적재장에도 들리시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료마대들을 보시며 이제는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아름찬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한 건설자들의 공로를 거듭 치하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 정녕 이것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어려있는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남흥땅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주체비료생산기지는 날이 갈수록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가고 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남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방대한 가스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체철과 비날론폭포로 이 땅을 들었다놓았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에 또다시 안아온 이 경이적인 사변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실현되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세계앞에 가슴후련히 보여주었다.

건설공사의 앞장에서

현대적인 가스화대상건설은 그 규모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공장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였다.

가스발생공정건설 하나만 놓고보아도 감탕층을 들어내고 막대한 량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야 하는것은 물론 그우에 여러층으로 된 건물을 일떠세우고 덩지큰 가스발생로들을 비롯하여 수백대에 달하는 설비 및 장치물들을 운반설치해야 하는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남흥의 로동계급은 우리의 힘으로 가스화대상을 일떠세워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제1시공주》가 되여 건설전투의 앞장에 섰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행생산과 대상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이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건설전투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특히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되는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며 기업소의 력량으로 여러가지 대상설비들을 완성, 조립하면서 방대한 전투과제를 맡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남흥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사의 방대함과 어려움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꽃피우는 실천투쟁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지닌 남흥의 로동계급, 이들은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여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스화대상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조업을 선포하였다.

한마음한뜻으로

가스화공사의 나날 불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애국의 마음들이 남흥땅으로 대하마냥 줄기차게 흘러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남흥가스화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남흥화학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가스화대상설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많은 설계도면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건설에 동원된 화학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저탄장과 봉탄성형장, 건조장건설 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륙해운성 기동려단과 평안남도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수송전투와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봉학화학건설사업소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가스탕크의 제작과 조립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완성하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의 수많은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건설기자재와 물자들을 원만히 보내주어 가스화대상공사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안주시민들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종업원가족들을 비롯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된 긍지를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순결한 공민적량심과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안고 끊임없이 공사장에 찾아와 건설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주고 보다 큰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수지마대 직장에서

창조의 노래높은 일터

얼마전 당대표자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들끓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증산의 동음높은 수지마대직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결불안이라고 현장은 첫 순간부터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였다.

창문너머로 비쳐드는 눈부신 해빛, 원형북직기들에서 울려나오는 고르로운 동음, 춤추듯 기대를 오가는 직포공들의 잽싼 일솜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직장장 리히욱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흥분된 심정으로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자동압출기를 통해 해살처럼 뽑아져나온 긴 수지실오리들을 실토리에 감아주는 첫 공정을 거쳐 직포현장에 이르렀다. 두줄로 쭉 늘어선 현대적인 원형북직기들에서 잠간사이에 하얀 수지마대천을 필필이 짜내는 직포공들의 일솜씨는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책임기사 김춘희동무는 몇해전만 하여도 보잘것 없던 직장의 기계설비들이 오늘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하면서 현대화수준을 높여나가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자체의 힘으로 직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해나가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나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체비료가 끊임없이 콘베아를 타고 흐르는 출하직장의 작업현장이다.

그처럼 아름찬 가스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 비료폭포가 쏟아지는 장쾌한 모습을 보여드린 남흥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의 기쁨을 담았는가 눈처럼 하얀 비료가 콘베아를 타고 춤추듯이 흐른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온 나라에 또 하나의 대경사를 안아왔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남흥로동계급의 심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려는 하나의 생각으로 고동치고있습니다.》

벨트콘베아운전공 배경심동무의 절절한 목소리이다.

남흥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싣고 흐르던 비료가 적재장에 폭포처럼 쏟아진다.

솰—솰— 소리내며 두줄기로 쏟아져내리는 비료를 보느라니 벌마다, 논마다에서 곡식들이 우적우적 소리를 치며 푸르싱싱 자라는 모습이 보이는듯 하고 풍요한 대지에 벼이삭이 물결치며 설레이는 소리가 귀전에 들리는듯 하여 우리의 가슴도 흥분으로 달아오른다.

포장공정에서는 수자표시장치가 달린 현대적인 포장기들을 타고앉은 제품2작업반의 포장공처녀들이 날랜 솜씨로 수지마대를 련속 물려주고있다.

작업반장 리창준동무의 말에 의하면 콤퓨터를 통하여 비료를 자동계량할뿐아니라 전반포장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있어 일하기가 얼마나 흥겨운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자랑섞인 말을 듣는 짧은 시간에도 기대에서는 빨간 불이 련속 켜진다.

비료가 정량대로 담겨졌다는 신호이다.

눈깜박할 사이에 비료가 담겨진 마대는 콘베아를 타고 흘러 재봉공정으로 넘어간다.

련속 흘러오는 비료마대를 재봉설비가 기다렸다는듯이 순식간에 기워버린다.

흥겨운 작업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재봉공 리영미동무는 말한다.

《주체비료가 가득 담겨진 마대를 들끓는 농업전선에 보내는 기쁨과 보람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내 조국의 만년재부를 창조한 긍지를 안고 비료산을 더 높이 쌓아가겠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출하직장현장에서 본다.

적재장에 높이높이 쌓아지는 비료더미와 함께 10월의 경축광장에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설 남흥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을.

현지보도

주체비료가 쏟아진다

출하직장에서

사회주의협동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기행

사랑의 생명수 넘쳐흐르는 복받은 대지

미루벌에 뻗어간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루벌을 개간하고 옥토로 전변시켜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수리화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미루벌로 뻗어간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자연흐름식물길!

천지개벽된 미루벌에 사랑의 생명수가 흘러들어 물걱정이라는 말을 영원히 모르고 농사를 짓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기어이 보답하자고 미루벌의 농민들 얼마나 뜨거운 애국의 땀을 이 땅에 묻어가고있는것인가.

력사에 길이 전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 담아싣고 생명수흐르는 복받은 대지 미루벌의 벅찬 현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취재길을 이어갔다.

우리는 흥에 겨워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얼굴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그전날 지나가는 길손에게 죽 한그릇은 대접해도 물 한그릇만은 못 주었다던 이 땅, 이 미루벌이 아니였던가.

문득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산다는 한 로인의 말이 떠올랐다. 해방전 농사지을 물을 하늘이 주는것으로만 알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했던 사람들, 타든 곡식포기들에 눈물을 쏟지 않으면 안되였던 미루벌사람들이 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돌미산을 내린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나섰다. 푸르른 포전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김매기를 마지막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논과 강냉이밭에도 남새밭에도 물기를 실컷 빨아올린 농작물들이 푸른 잎새들을 한껏 펼치고있었다.

길이 전해갈 천지개벽의 새 력사

산중의 대인공호수로 변한 모체저수지에서 시작된 물길을 따라 길을 떠난 우리는 미루벌에서도 해발고가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 곡산군 평암리에 도착하여 돌미산에 올랐다.

미루벌농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세세년년 전하며 우뚝 솟은 돌미산!

잊지 못할 력사의 지점에서 미루벌의 전경을 굽어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푸른 물 가득 싣고 출렁이는 평암저수지, 눈뿌리 아득히 뻗어간 자연흐름식물길, 그 물길을 따라 솰—솰— 소리를 내며 사품치는 강물마냥 쉬임없이 흐르는 생명수…

몇해전까지만 해도 골짜기가 있던 자리에 생겨난 저수지는 바다를 방불케 하였다.

우리와 만난 군의 한 일군은 모체저수지의 물이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여러 저수지들에도 흘러들어 미루벌을 적시고 마르게 바라고바라던 물! 바로 그 생명수를 백두산위인들이 가져다주시였다.

해방후 미루벌을 찾으시여 조이삭마저 다 타다싶이 말라버리는 이 땅을 원망하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왔던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관개공사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우리 수령님,

미루벌농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봉우리에 몸소 오르시여 황금으로 언제를 쌓아서라도 저수지를 건설하여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에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여 남강—미루벌물길이 뻗어가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속에서 오늘의 미루벌전변의 새 력사가 시작된것이 아니랴.

후더워진 가슴을 안고 평암협동농장의 농장벌에 이른 우리는 포기당 아지수를 세여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농장일군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인 그들은 이 포전이 바로 지난해까지만도 강냉이밭이였다고, 적지 않은 면적의 밭이 논으로 변하여 이렇게 포기마다 아지를 흡족 쳤으니 가을의 결실은 흐뭇할것이라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루벌에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을 펼쳐주시지 않았던들 오늘의 이 희한한 현실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옳은 말이였다.

동행한 군일군은 우리에게 올해에 많은 면적의 밭이 논으로 변하였다고 자랑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현실로 활짝 꽃피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루벌물길건설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건설기재들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속에 새긴 건설자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콩크리트치기와 물길굴뚫기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여러개의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여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완공하였다.

통현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결의를 안고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포전에서 농작물가꾸기에 땀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었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산북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미루벌 그 어디에서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 그리움의 정을 안고 김매기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었다.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백두산위인들의 그 사랑, 그 은덕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우리는 률리협동농장에 이르렀다. 검푸른색을 띠고 포전을 꽉 메우며 아지를 친 벼포기들, 윤택이 도는 잎새를 쭉쭉 뽑으며 키를 넘게 자란 강냉이포기들…

제1작업반포전에서 만난 작업반장은 거름생산에 쓸 물이 부족하여 눈석임물을 받아 써온 일이 이제는 옛말로 되였다고 자랑하는것이였다.

올해에 례년에 없이 변덕스러운 일기조건에서도 해빛에 덥혀진 저수지의 물이 흘러들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튼튼한 벼모를 길러냄으로써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었다는 자랑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는 월양협동농장의 포전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물걱정을 모르게 되였으니 서해벌방사람들과 경쟁할 결심을 하고 떨쳐나섰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미루벌에 마련될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대성협동농장에 들어섰다.

이 농장벌은 미루벌의 막바지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지만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저수지에 쉬임없이 채워진 물이 여러갈래로 뻗어나간 물길을 따라 포전으로 흘러들고있었다.

《물몰이고장이 이제는 물을 이고 농사를 마음껏 짓는 물천지고장으로 천지개벽되였습니다.》

우리와 만나기 바쁘게 터놓기 시작한 농장일군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농사차비때 물통, 물초롱 등 수많은 중소농기구들을 장만하느라 몇곱절 품을 들여야 했던 나날들, 물때문에 일정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 영농작업들…

알고보니 대성땅은 막바지에 자리잡고있어 물이 제일 부족했던 고장이였다. 한해농사가 물잡이로 시작되고 끝나던 그전에는 모두가 등성이를 넘어설 물을 기다리고 한방울이라도 더 잡느라 분주히 뛰여다니다보니 농작물을 심는 적기마저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해농사를 짓고도 남는 물을 저수지에 가득 채워넣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었다.

열정에 넘친 그들의 모습에서 미루벌에 마련될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우리는 취재차를 달려 논면적이 제일 많은 신흥협동농장으로 향하였다.

제2작업반포전에 들어선 우리는 논머리에서 흐르는 물온도를 재고나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샐세라 물도랑을 다지고있는 한 논물관리공을 만났다.

그는 찬물이 그대로 포전에 흘러들어 그 피해를 막느라 수많은 생겨났던 《물고논》들이 이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의 생명수가 우리 농장을 천지개벽시키였다고 모두가 자랑한답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어이 이 땅에 풍년가을을 펼쳐놓으렵니다.》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애써 일하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뜨거운 마음은 푸르싱싱한 벼포기마다에도 슴배여있었다.

우리는 그 어떤 자연의 변덕에도 끄떡없이 풍년농사를 짓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뜨거운 한마음안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며 투쟁하고있는 미루벌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참으로 그 어느 농장포전에 가보아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 그리고 미루벌사람들의 보답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우리는 수백리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포전마다에 철철 넘쳐흐르는 물소리를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을 력사에 길이 전해가려는 미루벌사람들의 신념과 의지, 10월의 미루벌에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으려는 애국농민들의 심장의 맹세를 담아싣고 흐르고있는것만 같았다.

선군시대의 창조물—미루벌물길!

정녕 그것은 미루벌농민들의 삶을 꽃피우고 행복의 열매 주렁지게 해주는 사랑의 물길이였다.

우리 식의 자연흐름식물길과 더불어 영원한 풍년대지로 자랑떨칠 미루벌의 래일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은 긍지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당정책관철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실천가

신계군 대평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5작업반 반장 리철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과감히 돌진해나가야 합니다.》

주인다운 립장이 기본이다

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에서 분조장으로 일하던 리철화동무는 주체83(1994)년 5월 리의 구석에 자리잡고있는 제5작업반의 반장으로 임명되였다.

대평땅은 그의 고향이다. 그는 고향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꾸릴 포부와 결심을 안고 농장에 진출하였다. 무슨 일이나 알심있게 책임적으로 해내군 한 그는 인차 분조장으로 임명되였으며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였다.

그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가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5작업반은 당시 알곡생산에서나 작업반의 면모에서나 농장적으로 뒤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업반을 돌아보던 그는 한 살림집의 터밭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창 바쁠 때에 한 농장원이 터밭의 김을 매고있었던것이다. 잠시 허리를 펴던 농장원은 작업반장과 눈길이 마주치자 얼굴을 숙이였다. 낯익어 자세히 보니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달라고 제기했다는 농장원이였다.

리철화동무가 그에게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마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나이지숙한 농장원이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제 아버지는 자기 살림보다 분조농사를 먼저 생각한 실농군이였는데… 》

리철화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대평천너머에 있는 작업반의 포전들은 지력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제바닥층이여서 토심이 깊지 못하였다. 돌각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곳 땅이 벌방보다 좋지 못한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땅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고 알심있게 가꾼다면 얼마든지 소출을 높일수 있지 않겠는가.

며칠후 작업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철화동무는 말하였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이것은 당이 우리 농업근로자들앞에 제시한 구호입니다. 우리가 작업반, 분조의 포전들을 자기의 포전으로 여기고 땀과 열정을 바치면 그만큼 땅은 알찬 열매를 안아올릴것입니다.》

그는 빈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력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포전에 흙깔이도 하고 소석회도 치면서 토지를 개량해나갔다. 포전을 규격화하는것과 함께 집짐승을 많이 길러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냈다. 밭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돌각담도 말끔히 쳐냈다.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리철화동무와 작업반원들이 가꾼 포전에는 알찬 열매가 실리였다.

농장원들속에서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말이 자주 화제에 오르군 하였다. 그럴수록 리철화동무는 분발하여 작업반원들을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었다.

어느해 봄 밭갈이가 한창 진행될 때였다. 작업반의 부림소를 모두 동원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뜨락또르를 동원해야겠는데 대평천너머의 산등성이를 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리철화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꾸는 포전은 단순히 강냉이를 심는 포전이 아니라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안길 〈총탄〉을 생산하는 전투장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고지로 직사포를 끌어올리던 인민군용사들을 그려보며 이 뜨락또르를 기어이 끌어올립시다.》

이렇게 말하고난 그는 바줄을 뜨락또르에 걸고 그 한끝을 어깨에 메였다. 이른아침 집을 나설 때 안해가 근심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다리에 또 동통이 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작업반장의 뒤를 따라 모두가 떨쳐나섰다. 언제나 말없이 작업반장을 뒤받침하는 당세포비서도, 지난날 터밭일에 먼저 관심을 두던 농장원도 아니 마을사람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줄을 어깨에 든든히 메였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의 힘을 합쳐 40°경사지의 100여m구간을 끝내 점령하고 밭갈이를 제 기일에 보장하고야말았다.

두해전 가을 농장에서 지력이 매우 낮은 포전들에 대한 문제를 놓고 론의가 많을 때였다. 농장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리철화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인민군용사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땅이 아닌가.

그는 자신과 작업반원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 기름지게 걸군 포전들을 다른 작업반에 넘겨주고 그 포전들을 작업반에서 가꿀 결심을 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리당위원회를 찾아갔다.

《그 포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리당일군은 미더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리철화동무는 기어이 해낼것이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리철화동무는 작업반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땅을 걸구어나갔다.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다음해 가을 그 포전들에는 알찬 열매가 실리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지난날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던 5작업반은 나날이 흥하는 작업반으로, 모든 면에서 앞선 작업반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였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10여년전 어느날 한적하던 마을의 게시판에 뜻밖에도 희한한 전망도가 나붙었다.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청년학교, 탁아소, 작업반건물들, 집짐승우리들…

사람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작업반원들은 물론 마을의 로인들과 아이들까지도 키돋움하며 전망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인차 실망으로 바뀌였다. 전망도나 희한해서 무엇하랴. 그것이 현실로 된다는 담보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의 뒤켠에서 이 모든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리철화동무가 게시판앞에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제 힘을 믿고 우리모두 마을을 한번 본때있게 꾸려봅시다.》

작업반장의 확신에 넘친 말은 잠자던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는 먼저 시범적으로 한동의 살림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이 일에 달라붙었다.

처음에는 농사일도 하면서 꽤 해내겠는가고 반신반의하던 일부 농장원들도 살림집이 날마다 달라지자 생각을 고쳐하고 일에 성수가 나서 달라붙었다. 새로 지은 살림집에 농장원이 새집들이를 하던 날 작업반원들은 생각이 많았다.

비록 살림집은 소박했지만 제힘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이여서 긍지와 보람은 컸다. 새 살림집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리철화동무와 작업반원들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청년학교, 탈곡장, 탁아소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살림집과 건물들 그리고 탁아소에는 외장재도 산듯하게 바르고 매 건물의 특성을 살려 섬세한 부각장식도 특색있게 하였다.

자그마한 《목장》을 방불케 하는 축사에도 고기문제를 풀어 농사일에 수고가 많은 농장원들이 덕을 보게 하고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알곡생산에 이바지하려는 리철화동무의 드팀없는 의지가 비껴있었다. 소, 염소, 돼지, 토끼 등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축사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흥하는 작업반의 래일을 축복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리철화동무를 가리켜 《산림감독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작업반장일을 할 당시 마을주변과 산기슭에는 나무가 별반 없었다. 그는 리용가치가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것을 결심하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작업반장이 너무 일을 벌려놓지 않는가고 걱정하는 농장원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리철화동무는 말했다.

《우리가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놓으면 그 덕을 보게 될 후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리철화동무는 이런 마음으로 아카시아나무림뿐아니라 밤나무림, 잣나무림조성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5작업반마을의 주변과 산에는 나날이 푸른 숲이 우거지였다.

애써 가꾼 밤나무와 잣나무들에서 흐뭇한 수확을 하던 날 리철화동무는 마을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탐스러운 밤과 잣들을 안겨주며 말하였다.

《이 밤과 잣을 무심히 보지 말아라. 여기에 너희 부모들의 고귀한 땀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에 작업반원들을 친근한 혁명동지로 여기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어 로력혁신자로, 초급일군으로 키운 이야기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기울인 뜨거운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 적지 못한다.

그래서 농장원들은 그를 두고 《우리 작업반장》, 《우리 대의원》(그는 도인민회의 대의원이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숭고한 본분을 자각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리철화동무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늘도 리철화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천 일

리 철 화 동 무 (가운데)

우시군약초관리소 종업원들

골마다 약초향기 넘쳐나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약초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심심산골 군인 우시군의 약초관리소를 찾았다. 우리가 관리소의 종업원들을 만난것은 산비탈골짜기에 자리잡은 약초재배지에서였다.

그날은 몹시도 더웠다. 더우기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약초밭엔 가물이 들었다.

소장 김희숙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물바께쯔를 들고 산으로 올랐다. 그들속에는 60나이에 이른 재배작업반 반장 장기송동무도 있었다.

한포기, 두포기, 그늘밑에 앉아 쉬기도 어려운 무더운 때에 평지도 아닌 산길을 오르내리며 그렇게 물을 준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금방 물을 주고나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다시금 말라버려 주고 또 주기를 몇십번,

그러나 누구도 이 길에서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고려약생산의 선행공정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우리야 자강도사람들이 아닙니까.》…

소중한 넋을 안고 바쳐가는 불같은 마음들이 있어 이들은 지난 몇해사이에만도 매해 수십t의 거름을 내여 약초밭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었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자강땅에서는 재배하기 힘들다던 감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초재배를 여러번의 실패끝에 성공한 이야기이며 오미자며 찔광이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약초를 심기 위한 과정에 꽃펴난 아름다운 이야기들,

다문 얼마라도 그해에 수확하는 1년생약초를 심으면 고생을 덜수 있었으련만 3년세월 땀을 흘려서야 거두게 되는 3년생약초를 하나라도 더 심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그들이다.

누가 보건말건 외진 산골짜기에서 량심을 바쳐 이룩한 이들의 투쟁성과로 군약초관리소는 도고려약생산관리국적으로 언제나 앞자리에 서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고려약공장들에서 나오는 효능높은 약들을 받아들고 좋아할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중 누구도 그 약을 만드는데 쓰인 약초들이 어떻게 생겨난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어떠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바쳐가는 이들의 소박한 마음이 약초향기처럼 풍기는데야.

본사기자 방 경 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천군 률길리에서 일터와 가정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군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있다.

최근에만도 이곳 농근맹조직에서는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수종이 좋은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농장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과 작업반공공건물, 도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집짐승기르기와 과일나무가꾸기, 태양열온실운영을 잘하는 세대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모든 가정들이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자기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가려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농장의 면모는 나날이 달라지고있으며 당면한 영농작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안 두 희

경희극 《산울림》공연 평양에서 계속 진행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공연이 15일부터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경희극은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공연장소인 평양대극장은 투쟁과 위훈의 심오한 진리를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을 관람하려온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로동당시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전세대들의 숭고한 인생관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동깊게 펼쳐보임으로써 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평양시내 당, 정권, 근로단체일군들은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천리마의 기상이 안겨오는 공연을 보면서 대담한 작전과 전투적인 일본새로 대중을 영웅적투쟁에로 조직동원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은 실적을 쌓아가는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이 될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고조의 선봉에 선 제대군인들과 청년전위들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헌신분투한 천리마시대 선구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청춘의 패기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애국의 《산울림》을 남먼저 울리는 용감한 돌격투사의 영예를 떨칠 맹세로 가슴끓이였다.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도 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비상한 감화력을 불러일으킨 출연자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국립연극단 창조집단의 투쟁방식대로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완벽하게 구현한 명작을 많이 내놓을것을 다짐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리상, 불굴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해나감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백살을 맞이한 룡천군 신암리에서 사는 박리근할머니에게 전달되였다.

해방전 망국노의 설음속에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그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농업생산에 헌신하였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로동에 근면한 그는 오곡밥과 콩음식, 남새 등을 좋아하고있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모든것을 바쳐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및 영화상영주간 개막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및 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이 19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각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기발이 세워져있는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전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장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방문을 수록한 사진문헌들과 로씨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개막식에는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력사적인 조로공동선언발표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전대통령의 여러차례의 상봉으로 쌍무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10년간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여왔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번 사진전시회와 영화상영주간이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뿌찐 대통령과 상봉》을 감상하였다.

중국 과학원대표단 도착

시이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과학원대표단이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성욱 국가과학원 부원장과 리경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일행이 떠나갔다

모하메드 함맘 싸아드 알—아브둘라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과 일행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손광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체류기간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과 일행은 체육과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요구대로 일하는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의 힘으로 현대화를 다그쳐

홍 원 군 에 서

홍원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와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조하고있다.

기술개건의 불길드높이 갖가지 질좋은 기초식품을 쨍쨍 생산할수 있게 면모를 일신한 식료공장이며 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제품을 척척 만들어내는 철제일용품공장, 원료절단과 이송 등 기술혁신성과를 련이어 도입한 종이공장…

지방공업공장들의 자랑도 좋지만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에 메탄가스를 리용하는 주민세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태양열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밥을 짓는 새 풍경이 생겨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군의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위력한 추동력으로 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추진시키고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게 하고있는것이다.

군에서 도적으로 제일 먼저 《새 기술보급실》과 《전자업무연구소》 등을 꾸리고 과학기술보급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하도록 한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확고하기에 군의 책임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단위일군들도 높은 실력을 지니고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이 서있다.

군에서 잘한것은 매개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현대화사업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바로하도록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옳게 조직동원한것이다.

그를 위해 식료공장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여기서 창조된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위들의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식료공장에서는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서 기술개건을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은을 내는 련관단위들을 찾아가 경험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자체실정에 맞게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섬멸적으로 해제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뽐프와 전동기는 물론 전기도 쓰지 않고 석탄소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게 수직련관식무동력보이라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증기를 원만히 보장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열장치를 더 늘여 폐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착상을 하였다. 무동력보이라의 운영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군에서는 버섯공장과 종이공장, 은덕원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과를 확대하였다.

과학기술로 무장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안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비상한 창조정신을 기울여 지난 시기의 착유설비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술개건사업이 큰 규모에서 통이 크게 벌어지는데 맞게 군의 일군들이 해당 단위들에만 떠맡기지 않고 군과학기술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이한 분야의 실력있는 사람들로 기술혁신집단을 무어 공장의 기술개건을 적극 도와주게 한것은 시사적이다.

군에서 기술혁신집단을 무은것은 과학기술적으로 어려운 모퉁이를 맡아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건사업이 보다 빠른 속도로, 높은 질적수준에서 추진되게 하자는데 있었다.

기술혁신집단은 왕성한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공장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외부증발기를 가진 진공박막식 물엿생산공정을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한것, 식초생산공정과 화학공장의 기술개건실현…

기술혁신집단에서 태양열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농촌세대들에서 밥을 지을수 있게 한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홍원군 봉화리의 농촌마을에 가면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바로 태양열밥가마들이다. 반사되는 태양빛을 한데 모아 열에네르기로 전환시키도록 만든 기구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기술혁신집단에서는 밤을 밝혀가며 필요한 참고도서를 보기도 하고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이 기구를 끝끝내 제작해내는 성과를 안아왔다. 농촌세대들에 이 기구들이 설치됨으로써 땔감문제를 풀수 있게 되였으며 가정주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기술혁신집단에서는 지방의 원료로 석탄을 분한있게 쓸수 있는 방법도 내놓았다. 기술자들은 자기 지방에 흔한 석비레와 톱밥을 일정한 비률로 석탄과 혼합하여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였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현대화의 동음 드높은 공장들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여가는 농촌마을의 모습은 과학기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군의 일군들은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요구대로 일하는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풍조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일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강성대국의 그날은 앞당겨진다고.

본사기자 오 철 훈

기술혁신의 주인이 되여

순천직물공장 기술자,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순천직물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불같은 열정안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현장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던 길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한것은 생산과정에 나오는 실밥에 관심이 갔던것이다.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그 어느 단위에서나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쨍쨍 생산하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일군들은 실밥을 재생리용할 구상을 무르익히였다.

초급지휘성원들, 기술자들과 생산현장에서 마주앉은 이들은 실밥을 가리키며 자기의 견해를 말하였다. 실밥으로 편솜을 만들고 그것으로 실을 뽑으면 그만큼 제품의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는것이였다. 이것은 대중의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설비를 갖춘 생산공정을 새로 꾸려야 하므로 주저하는 기색도 엿보였다.

—신비하게 여길것은 없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에로 부른 당의 뜻을 심장으로 접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문제는 누가 해주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술혁신의 주인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가지는것이다.

길지 않은 림철수동무의 이야기는 생산자대중을 각성시켰다.

문제로 된것은 절단설비의 제작이였다. 다른 단위에 있는것보다 더 능률적인 설비를 만들 결심으로 작업반장 김석술동무는 고심어린 창조적노력을 기울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그를 적극 도와나섰다.

서로의 마음과 창조적힘이 합쳐지는 속에 드디여 생산능률을 높이면서도 안전하게 절단할수 있는 설비가 제작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이어 타면설비를 만들어내면서 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련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대여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정경설비에 전자식측정기를 도입한것 등은 다 기술혁신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낳은 산물인것이다.

본사기자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의주기초식품공장에서— 신충혁 찍음

정의의 통일애국투쟁은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의 파쑈당국이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부산지방경찰청과 《정보원》패거리들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실과 핵심간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감행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파쑈당국은 저들이 강제로 압수한 문건들과 출판물들을 《분석》한다, 이 단체성원들을 《소환조사》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단체를 탄압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것은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다. 6.15공동선언의 고수리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보수당국의 파쑈적폭거는 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소동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지금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바라는것은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며 그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민족적단합으로 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나깨나 통일만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 리행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애국적장거로서 마땅히 높이 평가되여야 한다.

오늘의 6.15통일시대에 범죄시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짓밟으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이다.

극악한 반통일집단, 파쑈폭군으로서의 그들의 더러운 정체는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보수패당이 집권하자마자 벌려놓은것도 제15기 《한총련》의장을 강제련행하고 농민시인 정설교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악형을 들씌웠으며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을 통일교육을 하였다는 리유로 구속한것과 같은 통일민주세력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압소동이다. 보수패당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면서 그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모든것을 제거대상으로 삼고 가차없는 탄압을 가하여왔다.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리적분자》, 《체제전복세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우고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탄압할뿐아니라 심지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명한 두 전직 《대통령》들까지 모함하고 박해하던 끝에 죽음에로 몰아가는 정치적살인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지한 깡패집단이 바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다. 올해에도 피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에 그 무슨 《원칙고수》를 부르짖으며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사소한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마저 모조리 차단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보수당국이 5.1절 120돐을 계기로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였던 북남로동자들의 통일행사를 악랄하게 가로막은데 이어 북과 남의 통일운동단체들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기념하여 공동으로 계획한 통일행사를 또다시 파탄시킨것도 바로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다.

괴뢰패당이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것은 남조선 각계가 동족과의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사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자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북남선언들을 끝까지 부정하고 그 리행을 위한 길을 가로막자는데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등지고 대세의 흐름에 밀려난 력사의 반동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6.15공동선언은 정의이며 그 실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투쟁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제선거》결과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역적패당이 《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세력들에 대한 폭압광풍을 일으키는 한편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사기극까지 조작하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였지만 분노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었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앞두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떨쳐일어나 《선거》에서 역적패당에게 대참패를 안긴것은 친미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민주세력의 커다란 승리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지난 10년동안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절감하였다.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것만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바로 이것이 6.15통일시대의 진정한 애국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민족반역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긴것이다. 현실은 그 어떤 파쑈폭압도 반통일광풍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승리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반통일세력에게 종국적파멸을 안겨야 한다.

친미사대와 파쑈독재, 동족대결은 남조선보수패당의 고유한 생리이며 그것은 반역무리들이 무덤속에 처박히기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 《통일부》패거리들이 분노한 민심이 두려워 6.15공동선언을 《반대한적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구구히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통일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이다. 역적패당이 진실로 북남공동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6.15지지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파쑈적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하지만 리명박일당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당한 참패에 순종하고 반통일정책을 철회할 대신 오히려 《선거》패배에 대한 앙갚음을 하고 다가오는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독재자들에게 자신들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은 그에 역행해나서는 반역패당에게 종국적인 파멸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박 철 준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며

여름밤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인 주체55(1966)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실 보고를 준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회의준비사업을 하는 일군들의 숙소를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루에 몇시간씩 자는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창문밖을 바라보시며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생각이 더 난다고, 어쩐지 남조선인민들 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전쟁때 서울에 나가보았는데 그때 그곳 동포들에게 인사의 말도 한번 못했다고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해방직후 서울사람들은 역전광장에 모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말을 나도 들었다고,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가고있다고 가슴아픈 심정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가장 훌륭한 선물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기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기회에 수령님께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중히 질문한적이 있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은 한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이지만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다고,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이며 북과 남의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나라의 통일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도 이룩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바로 다름아닌 조국통일이라고 그토록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잊지 못할 새벽이 전하는 사연

주체63(1974)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심려의 한밤을 지새우시였다. 새벽 4시경이였다. 그이께서는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지켜보시다가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전화를 받게 된 그 일군은 《수령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격정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며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까지도 쉬지 못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으로 숭엄히 우러르는 일군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김 현 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파쑈적탄압이 전례없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인 한충목을 비롯한 《한국진보련대》의 핵심관계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사무실과 집들을 압수수색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우리 민족 련방제통일추진회의》의 사무실, 회원들의 집을 기습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잡아가두었는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반 《정부》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역적패당은 괴뢰당국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재조사를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리적반역행위》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인터네트에 당국의 모략소동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가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놀음을 벌리고있다.

한편 괴뢰들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과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남조선강원도지사로 당선된 리광재, 여러명의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이전 《정권》관계자들과 야당인사들을 《불법자금수수의혹》,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걸어 제거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진보련대를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탄압소동은 지금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의 각계층은 《정권붕괴사태를 막아보려는 최후발악》, 《지방선거참패에 대한 정치보복》, 《정권비판세력을 와해말살하려는 술책》 등으로 비난, 규탄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리명박괴당의 탄압책동을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민주,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파쑈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패당은 얼마전에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하고 그것을 계기로 통일운동세력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의 진출이 강화된데서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짓누르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더 매달려 집권후반기 《정권안정》과 다음기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리명박괴당이 이전 《정권》시기 당국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우리와의 실무접촉을 진행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관계자들에 대해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아 《암약》한것처럼 사실을 날조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탄압에 환장이 되여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괴뢰들의 무분별한 탄압책동에 의해 지금 남조선은 동족과의 접촉은 고사하고 보고 듣고 말할수 있는 초보적인 인권조차 여지없이 말살된 민주의 페허지대로 전락되였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탄압책동은 대내외정책파탄과 북남관계파국, 《정권》위기로 림종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역적무리들이 민심에 역행하여 폭압선풍을 일으킬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더 거세찬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비롯한 각계층은 괴뢰파쑈광들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며 다가오는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리명박보수패당에 다시한번 무서운 철추를 내릴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진보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비렬한 파쑈적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7월19일
평 양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밝은 미래를 위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이 국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성을 지키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얼마전 총련 니시고베조선초급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올해초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총련 니시도꾜조선제2초급학교 교장 리정애녀성의 강연이 있었다. 모진 곤난과 역경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폐교의 위기에 처했던 학교를 끝끝내 살려낸 그의 경험담은 강연회에 참가한 모든 교직원, 학부형들을 한없이 감동시키였다. 리정애교장처럼 자기들도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키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 강연참가자들은 곧 그를 위한 실천활동에 들어갔다. 30대, 40대 동포들을 중심으로 학생인입사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목표가 높이 설정되고 실천되여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동포들과 교직원들은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인 올해에 높은 실적을 거둘 각오로 애국의 발걸음을 다그치고있다.

총련 니시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아버지회와 어머니회도 학교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것으로 하여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져있다. 언제나 티검불 하나 없이 알뜰히 관리되고있는 학교내외부며 방대한 량의 도서들이 자료기지화된 도서실 등 어느 구석에나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왼심을 쓰며 지성을 아끼지 않는 이 학교 학부형들의 손길이 어려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학교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 구슬땀을 흘리였다.

존경받는 교원집단

얼마전 총련 와까야마조선초급학교구내는 류다른 환희에 휩싸이였다. 이 학교교원들이 모두 모범교수자칭호를 수여받은것이다. 총련 오사까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한 의식에서 영예의 표창장을 받아안고 돌아온 교원들은 지역동포사회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민족교육의 생명선을 지켜선 자각과 영예안고 교수교양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교원들을 물기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동포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우리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위해주며 훌륭한 조선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애쓰는 사람들,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민족교육 하나만을 생각하며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는 저 선생님들이야말로 제일 존경하고싶은 사람들, 소리높이 자랑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동포들은 더욱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축하의 꽃보라속에서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어엿한 역군들을 키우는 교육자된 긍지와 영예감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 교원들은 한생을 영원히 민족교육의 화원을 꽃피우는 길에 바쳐갈 심장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영예떨친 꼬마선수들

얼마전 총련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지역에서 진행된 비교적 큰 규모의 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소식이 전해져 동포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의 40개 소년구락부팀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민족의 강의한 기질과 투지를 키운 꼬마선수들은 필승의 신심안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예선경기들에서 상대팀들을 모두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본선경기에 진출한 그들은 준준결승경기와 준결승경기들에서도 조선학교팀의 용맹과 기개를 높이 발휘하였다. 우리 학교의 영예를 한껏 떨치였다. 끝까지 싸우는 용감한 기질과 높은 기술, 우리 학교에만 고유한 강철같은 단결력을 지닌 이들앞에 상대팀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꼬마선수들에게 있어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경기대회가 아니였다. 그것은 몰아치는 사나운 광풍에도 끄떡없이 민족의 넋을 꿋꿋이 지켜나가려는 자기들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마당이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폭로되고있는 보수《정권》의 부패성

불법사찰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6일 론평을 발표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불법사찰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것을 주장하였다.

론평은 《국무총리실》이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행위와 관련하여 자체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범행에 가담한것으로 드러난 몇명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검찰수사를 의뢰한것으로 그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불법행위의 주모자인 《영포회》의 정체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흑막속에 덮어두기 위한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공직자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고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도 자기 기구안에 《영포회》와 같은 사조직이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간인불법사찰을 주도하게 한것으로 하여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자격도 없다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법사찰행위의 진상을 옳바로 밝혀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권력을 리용한 부정행위를 규탄

7일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가 권력을 리용하여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 괴뢰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권력의 요직들을 차지한 《영포회》가 불법사찰행위를 일삼고 정계를 배후조종하며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온 사실들이 폭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에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리명박의 일가족속이 살던 경상북도 포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람용한것과 같은 죄행들이 드러난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부패로 얼룩진 리명박《정권》에 있어서 《영포회》의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이미 예견된것이였다고 밝혔다.

리명박이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권력의 요직에 이러한자들을 들여앉혀놓은것이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민심에 역행하는 세력은 언제든지 심판을 받기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영포회》의 배후규명을 주장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5일 《영포회 의혹, 그 배후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최근 《국무총리실》산하 《공직륜리지원관실》이 민간인불법사찰을 감행한 사건이 드러난데 이어 그 배후문제를 둘러싸고 론난이 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직륜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산하이지만 실지에 있어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으며 자기의 활동정형을 《공직륜리》문제와는 관련없는 다른 수석실의 고용로사비서관 리영호에게 보고하고 그를 통해 검찰, 경찰, 《정보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까지 전달받은데 대해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이번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배후로 《영포회》가 주목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고향따위의 사적인연으로 련결된 《정권》내 사조직이 공무원사회감시는 물론 민간인사찰 등 다른 불법행위까지 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올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론난이 이쯤되면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혐의가 분명한 몇몇을 처벌하는것으로 의혹이 잠재워지기는 이미 어렵게 되였다.

《영포회》가 실지로 《친위대》구실을 했다면 리명박이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묵과했는지, 그 책임자와 배후는 누구인지 등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런 직권람용이 한둘에 그치지 않을것이니 지금 와서 대충 덮을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는 검찰조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비공식권력의 전횡을 방치하거나 숨기려들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수 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정국을 소란케 하는 《영포회사건》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의 권력형부정사건인 《영포회사건》이라는것이 터져 커다란 사회적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영포회사건》은 《국무총리실》산하 《공직륜리지원관실》의 리인규란자가 《청와대》의 고용로사비서관인 리영호와 작당하여 직권을 악용하면서 개인기업가의 뒤조사를 하는 등 민간인불법사찰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여기에 《영포회》(경북 영일, 포항출신 공직자모임)가 깊숙이 개입되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륜곽이 드러났다.

《영포회》는 리명박일가족속의 고향인 영일, 포항지역출신이거나 그곳에서 학교를 다닌 공무원들의 사적인 조직이라고 한다. 《영포회》는 집권자와 그의 형인 리상득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정부내의 권력실세들의 그룹》으로 불리우고있다. 그 관계자들이 집권자를 등대고 권력을 람용하고 월권행위를 하면서 빚어진 사건이 바로 《영포회사건》이다.

2008년에 《국무총리실》산하 기구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문제를 맡아보는 《공직륜리지원관실》이라는것이 신설되였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구는 민간인들까지 사찰대상으로 삼았다. 한 개인기업가와 로조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와 미행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더우기 문제는 이 기구가 공식사업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인것이다. 《공직륜리지원관실》의 지원관인 리인규는 자기의 활동정형을 《공직륜리》문제와는 인연이 없는 《청와대》의 고용로사비서관 리영호에게 보고하고 그를 통해 지시를 받았으며 지어 검찰, 경찰, 《정보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까지 받아 리용했다고 한다.

사건에 개입된 《청와대》비서관인 리영호와 《국무총리실》산하 《공직륜리지원관실》의 리인규는 다 《영포회》관계자들이다. 이로써 《영포회》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는 물론 민간인사찰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등 권력을 악용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다 저지르고있다는것이 폭로되였다.

하다면 《영포회》가 어떻게 되여 현 《정권》안에서 제세상처럼 날치며 횡포를 부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영포회》성원들은 집권자와의 인연의 덕으로 권력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세도를 쓰고있다. 이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파견되였다가 《고속승진》하는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되고있다고 한다. 2008년 11월에 열린 《영포회》송년모임에는 중앙부처의 국장 20여명을 포함해 사무관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가하였다. 《영포회》가 현 《정권》의 출현초기부터 《정부의 사조직》, 《실세그룹》이라는 비난을 받아온것은 우연치 않다. 《영포회》패들은 《인사》문제에서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영포회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된 《청와대》의 리영호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뒤 《청와대》에 승급해 들어갔다. 이자는 《국무총리실》산하에 《공직륜리지원관실》을 비밀리에 설치하는데 적극 개입하였으며 리인규를 비롯한 《영포회》인물들이 기구의 요직인 지원관, 과장자리들을 차지하도록 배후조종하였다. 이밖에도 《영포회》패거리들은 《국정운영》문제에까지 뛰여들어 포항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게 하는것과 같은 부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영포회사건》은 대체로 이러하다.

하다면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영포회사건》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영포회》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에는 집권자가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지난 7월 13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법이다. 리명박이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령남의 사적인연에 근거한 고소령선, 서울시장때의 S선을 공직사회에 구축해놓았을 때 권력형부정현상은 이미 예견되여있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드러난 권력람용 및 사유화는 특정인의 류별난 행동이 아니다. 한마디로 리명박의 권력행사방식이 낳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자는 권력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기와 인연이 있거나 보수《정권》출현에 공로가 있는자들에게 무제한한 권력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자기 측근인물들이 권력을 람용하여 물의를 빚어도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않고 뒤로 빼돌렸다가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수법을 썼다. 더우기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리명박은 이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내용을 알고있으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영포회사건》에 이어 《선진국민련대》출신인물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들도 잇달아 폭로되였는데 이 《선진국민련대》라는것도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현 집권자의 당선을 적극 후원한 단체라고 한다. 민간인불법사찰의 주역인 《청와대》 리영호도 《선진국민련대》출신이다. 이처럼 리명박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졸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전횡을 눈감아주었으니 어찌 《영포회사건》과 같은 권력형부정행위가 성하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민주당은 《영포회사건》을 《민간인불법사찰을 넘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롱간한 사건》, 《경악할 권력의 횡포》로 단죄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검찰조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영포회》가 권력을 람용하여 불법사찰행위를 일삼고 정계를 배후조종하며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온 사실들을 폭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파헤칠것을 주장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영포회사건》이 《정치적사건이 아닌 개인적사건》이라느니, 《국정조사》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느니 하고 생떼를 쓰고있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지자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어설픈 사람들을 엄정하게 조처하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포회사건》과 관련이 없는듯이 시치미를 뗐다. 지금 남조선검찰은 사건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속에 며칠전 사건의 주요인물인 《청와대》비서관 리영호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영포회사건》은 《7.28국회의원보충선거》를 얼마앞두고 터진것으로 하여 보수패당을 극도로 불안초조케 하고있다. 《지방자치제선거》참패와 대내외정책의 련이은 파산으로 궁지에 몰린 보수패당은 저들내부에서 권력형부정사건까지 터져 안절부절못하고있다. 《영포회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내부에서 신진세력이 집권자의 형 리상득을 비난하는 등 권력싸움마저 터져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영포회사건》은 썩을대로 썩은 리명박《정권》의 부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송 영 석

세기를 이어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웰남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네팔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네팔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디아국민대회당 비서, 대외정책연구소 소장,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과 스웨리예의 공산당,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의 대표들, 말레이시아 엠케이피회사, 자왈라회사, 죤슨 니콜슨회사의 사장들 그리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3일과 8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와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8일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로씨야, 오스트리아, 인디아에서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도서, 사진전시회가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 그리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사회주의당,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작가동맹,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인디아광업 및 광물무역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과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캄룰 아흐싼은 7월 8일을 맞으며 방글라데슈인민은 조선인민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 반제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 쎄묘노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이였다.

그이의 한생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빛나는 생애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최고성지에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에리히 차바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의 조국통일위업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한편 5일과 8일 로므니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에서도 회고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 탄자니아 모로고로 음쥼베종합대학 《김일성도서관》,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핀란드조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주체사상탑》이 상영되였다.

회고모임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아누는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고 하면서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탄자니아 모로고로 음쥼베종합대학 《김일성도서관》 책임자 싸라 므왐발라스와는 7월 8일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20세기를 빛내이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번영,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아올리신 주석의 거대한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김일성주석을 회고하는것은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응당한것이다, 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조선의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에티오피아의 새세대 청년들이 주석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는 귀중한 교과서로 된다고 말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씨까 아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헌신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시대의 걸출한 위인이시였다.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세계정치원로이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수리아에서 식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수리아 디마스끄시 카파르 쑤싸구역 김일성거리에서 5일 식수가 진행되였다.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디마스끄도위원회 비서, 디마스끄도 부지사, 디마스끄도 원림총국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식수에 앞서 발언들이 있었다.

아랍사회부흥당 디마스끄도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수리아조선친선협조관계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수리아인민과 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신 위대한분이시다.

주석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김일성거리에 나무를 심는것은 그이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수리아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의 표시로 된다.

디마스끄도 부지사는 푸르싱싱 자라는 김일성거리의 가로수들은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더불어 더욱 강화발전되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만대에 길이 전할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거리를 더 잘 꾸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인디아신문들 특집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신문들이 5일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디펜스 앤드 휴머니티》는 《김일성, 통일된 조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방해와 도전이 우심한 속에서도 나라의 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그것은 통일위업실현에 바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무엇보다도 민족의 리익을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간주하시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골자로 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도 바로 주석께서 제시하신것이다.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단합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조선통일의 3대헌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싸이언스 테크놀리쥐 앤드 에듀케이션 뉴스》는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많은 외국의 벗들을 만나주신데 대하여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을 찬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중요한 지역으로 여긴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비해놓고 공화국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지금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미국의 최신전쟁수단의 대대적인 반입,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등 정세를 격화시키는 움직임들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평화는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침략자들이 덤벼들수 없게 하는 강한 자위력 즉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이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이로부터 조선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왔으며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추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을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의 믿음직한 보루로 다지신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뻬루단체 불레찐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뻬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에서 5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16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16년간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의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군사적위협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밑에 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왔다.

또한 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본사기자

불순한 목적을 노린 흥정놀음

일본정부가 1960년대부터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억제력》으로 밝힌 외교문서가 최근에 공개되였다. 1968년 당시 일본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였던 도고 후미히꼬가 일미고위급실무협의를 위해 작성한 발언요강에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역할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사태에 즉응할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하였다고 한다.

발언요강이 작성되기 3개월전에 있은 일본외상과 주일미국대사사이의 회담에서 미국은 괌도에서 조선반도까지 전투기의 왕복비행이 어렵기때문에 오끼나와에 기지를 두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일본에 내리먹이였다. 타산많은 일본이 그것을 더없는 기회로 삼고 덥석 받아물었던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오래전부터 자국령토를 침략과 전쟁을 위한 미국의 병참기지로 섬겨바쳤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저들의 령토를 내맡긴것은 비단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1950년대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때에도 자국령토를 미제침략군의 병참, 출격, 보급기지로 제공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서 출격한 미제폭격기들이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데 대해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40여년간이나 강점하고 식민지파쑈통치를 강요한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계산해두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이 전후에도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억제력》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인민을 극도로 격분시키고있다.

오끼나와미군기지의 역할에 대한 미일의 더러운 흥정놀음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조선을 재침하고 해외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이 오끼나와를 미국에 병참기지로 내여준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공격계획에 합세한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어제나 오늘에나 변함없이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는것으로써 아시아정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일본이 국내에서 주일미군철수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오늘까지도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사용을 용인하려 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끼나와에는 주일미군의 근 3분의 2가 주둔하고있다. 현민들이 미군에 의해 혹심한 피해를 당하고있는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시위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미군의 오끼나와주둔을 계속 허용하려 하는것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후 법적으로 그 어떤 전투무력도 가질수 없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자국령토를 미국의 병참, 작전기지로 내여주는것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을것을 타산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군의 오끼나와주둔을 허용하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전쟁마당에 뛰여들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것은 일본의 교활한 수법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그런 방법으로 실현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는 철두철미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침략야망실현을 위한 주되는 창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이 미제와 야합하여 감히 반공화국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세기를 두고 쌓인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 택 범

조선통일의 력사적리정표

로씨야신문의 글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 제6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통일의 력사적리정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골자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하에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는것이다.

공동선언이 채택된이래 조선반도에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특히 2007년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여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그러나 지금 조선통일운동은 현 남조선당국의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엄중한 난관에 부닥쳤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하여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6.15통일시대의 긍정적인 결실들을 모두 뒤집어엎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는 확고부동하다.

6.15공동선언은 조선민족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조선통일의 리정표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핵전쟁도발가능성에 대해 경고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12일 TV방송연설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은 불피코 핵전쟁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며 침략자들은 이란인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지난 30여년동안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준비에 대해 오산하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괴뢰해군 함선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조작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바나발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수리화 추진

중국 감숙성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수리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성의 농촌들에서 257개의 양수장과 우물, 80여개의 물주머니를 건설하고 70km의 물길을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83만무의 농경지에 물을 새로 댈수 있게 하였다.

해저유전 발견

앙골라에서 최근 해저유전이 새로 발견되였다. 유전은 이 나라 경제수역의 바다물면으로부터 4 221m 깊은 곳에 위치하고있다. 이 나라 국영원유회사가 12일 이에 대해 밝혔다.

전력증산계획

이란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의 제5차 5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 전력생산능력을 제4차 5개년계획기간에 비해 45%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나라의 전력생산능력은 2 550만kW에 달하게 된다.

공업생산 증가

인디아에서 올해 5월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5%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1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빈궁청산노력

브라질에서 최근 빈궁청산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 2016년까지 빈궁률을 4%로 낮추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주민의 28.8%가 빈궁속에서 살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무모한 힘의 정책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군사적대결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야망을 파탄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가 보여주듯이 오늘 미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하여 반동적인 힘의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힘의 정책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의 발현이며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이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함에 있어서 반동적사상문화적수단과 함께 경제 및 군사적수단에 의거하고있다. 여기에서 미제가 가장 중시하는것은 군사적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군사적수단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데서 언제나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주로 군사적수단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여왔다.

랭전종식후 일련의 군사적행동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힘의 정책이 어느 정도 통할수 있겠는가를 시험확증한 미제는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지역전략, 중점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 미제는 군사적강권으로 발칸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저들의 군사적통제권안에 넣었다.

미제는 군사적수단을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다. 미제의 사고방식은 힘이 곧 《정의》이고 만능의 수단이라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힘이 강해야 저들의 의사와 리익을 다른 나라들에 마음대로 내려먹이며 자주적인 나라들을 쉽사리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미국의 현 미행정부는 겉으로는 《변화》와 《군축의 필요성》을 표방하고있지만 실지로는 힘의 정책을 계속 중시하며 강행하고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지출이 그 증거의 하나로 된다. 미국의 2010회계년도 군사비만 해도 무려 5 340억US$에 달한다. 이것은 그전 회계년도 군사예산보다 4% 늘어난 액수이다.

미행정부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하여 국내에서 군사비를 줄일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있다.

미행정부는 납세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낸 돈을 힘의 우위, 무엇보다도 핵우위를 차지하는데 탕진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핵전파방지》니, 《핵군축》이니 뭐니 하며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치고있다.

미국의 속심은 《핵군축》의 간판밑에 일부 낡은 핵무기들을 폐기하거나 축감하는 대신 보다 성능이 높고 타격력이 큰 새로운 현대적핵무기체계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지금 미국의 핵무기고들에는 2만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꽉 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험적인 핵전략에 따라 핵무기의 현대화와 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핵무기예산증가놀음도 그 한고리이다. 미행정부는 미국가핵안전국의 다음회계년도 예산안에서 핵무기관련 활동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는것을 승인할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힘의 우위, 핵우위를 이룩하는것을 일관한 정책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핵군축》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배치하고 힘의 정책을 강행하자는것이다.

미국은 힘의 정책을 강화하고 절대적인 전략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고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완성하여 세계를 저들의 미싸일타격권안에 넣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나라들을 선제타격하려 하고있다. 미제가 새로운 그 무슨 《도전》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은 그들의 힘의 정책, 패권주의야망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의 힘의 정책은 그들이 해외군사기지들과 해외주둔 무력을 유지강화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방성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은 해외에 1만 1 000여개의 군사시설들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침략무력이 배비되여있다. 미제의 해외군사기지는 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적거점이며 해외주둔 무력은 그들의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의 돌격대이다. 미제의 해외군사기지는 위험한 화약고이며 침략전쟁의 근원이다. 미제가 다른 나라 령토에 침략적군사기지를 두고있는것은 그 나라의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제의 힘의 정책은 특히 조선반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그곳에 수많은 미군을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있을뿐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핵무기를 전개해놓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핵전초기지로 영구히 틀어쥐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연습을 강화하는 등 북침전쟁준비완성을 다그치고있다. 지난 3월 남조선에서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소동, 핵시험전쟁이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가 가셔지기도 전에 그 연장으로 미국남조선련합해상군사연습이 발광적으로 벌어졌다. 미제는 이달에 남조선괴뢰들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광란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전쟁국면에로 치닫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 교란당하고있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힘의 정책의 《시험장》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커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힘의 정책강행에 기인된다.

미제의 새로운 조선침략전쟁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의 대조선전쟁책동과 힘의 정책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조 성 철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이란외무상 마누체흐르 머타키가 최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정권의 위험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년간 강점한 령토에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은 그들의 야만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유태복고주의정권은 지금 세계적으로 고립배격당하여 붕괴직전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은 반드시 독립국가를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13일 한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와의 간접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므로 직접회담을 하자고 요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러자면 이스라엘이 먼저 《정착촌》건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정착촌》건설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직접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민족당국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아랍국가련맹의 팔레스티나문제담당 고위관리가 13일 한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유태인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와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도 이러한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문제시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반이스라엘시위를 벌리는 뛰르끼예인민들

ㄱ-01128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생활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